

금감원장, 임원회의(1.14.) 당부사항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확대되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과 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확대, 상폐목적 공개매수 등을 언급하며, 최근 연초 인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음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 관련)

-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美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 금주 이후에도 美 CPI(15일), 금통위(16일), 트럼프 취임(20일)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

(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관련 등)

-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內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

* '22년말 24.7조원 → '24.6말 69.5조원(+180.8%)

** 은행재원으로 대출취급 후 일정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보전

- 최근 법원이 추진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비대면 주택 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관련)

-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22) 2건 → ('23) 2건 → ('24) 9건(전체 공개매수의 40.9%)

** '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

담당부서 :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02-3145-5900)	팀장	이희성 (☎ 02-3145-5940)
	금융시장안전국장	이진 (☎ 02-3145-8170)	팀장	이원흠 (☎ 02-3145-8180)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02-3145-8020)	팀장	김은성 (☎ 02-3145-8050)
			팀장	이윤선 (☎ 02-3145-8040)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 02-3145-8100)	팀장	김대일 (☎ 02-3145-8482)